

이 세상에서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길래 언제부터 음악이라는 게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주 먼 太古의 옛날부터 음악이 있었음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 정신과 신체의 긴장을 풀고 즐거운 기분이 된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어머니의 자장가에 잠이 들지 않는가? 심지어는 동물들도 음악으로 인하여 신체의 기능이 향상된다고 한다. 젓소도 음악을 틀어놓으면 우유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는가?

필자 역시 이 음악이란 것을 좋아해서 어느 종류의 음악이건-고전음악, 경음악, 팝, 가요 그리고 나이 40이 가까와지는 요즈음엔 창, 판소리, 민요를 포함하여- 다 좋아한다.

필자가 어린 시절 10대일 때에는 쉬운 고전음악, 특히 교향곡을 좋아 했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도 좋았고, 브람스의 교향곡도 좋았고, 모짜르트의 쥬피터 교향곡은 물론이고, 그 중 특히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이 좋아서 한때는 공부도 않고 식사시간도 잊을 정도로 감상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또 주위의 친구들은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필자가 고전음악의 곡조와 작곡자, 곡에 얽힌 사연 등을 아는 것에 감탄을 하고 그 재미에 필자는 이렇다한 곡은 지금도 거의 외울 정도이다. 덕분에 덩달아서 피아노는 또 얼마나 쳤던가!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까지는 학교에 왔다갔다 하는 것과 음악으로 세월을 다 보낸 듯 하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필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해군에 입대해서 진해에서 근무하였는데 아름다운 진해의 바닷가와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던 흑백다방, 또한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면서 경음악을 즐겼었는데 “폴 모리아”의 ‘관따나 메라’라는 곡이 필자의 마음을 사로 잡았었다.

저는 여름에 옷통을 벗고 넓은 남해바다 작은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이를 배를 타고 굽이굽이 돌면서 그 ‘관따나메라’를 듣는

기분이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다. 지금도 그 곡을 들을 때면 진해의 생각이 무럭무럭 나면서 젊은 시절 유쾌한 군대생활을 하였구나 하는 감회에 젖곤 한다.

그 후 제대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도 하고 결혼준비도 하던 어느날 해군본부 이발소 의자에 앉아 이발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고향처녀 생각이 난다’ 라는 노래가 흘러 나오는데 이 노래야말로 필자의 마음을 탁 치는 소리가 아닌가? 가사는 다 모르

## 음악과 나

鄭康敏

(成均館대공대 교수·전자공학)

지만 ‘고향처녀 생각이난다’라는 대목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도 열두번도 더 불렀을 것이다.

사실 고백을 하자면 지금도 필자의 아내는 가요를 좋아하고 있지만 옛날 처녀시절에도 무척 유행가를 좋아했었는데, 다방에서 들려주는 팝송이나 가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할 정도였다. 그 때마다 필자는 ‘무슨 여자가 이런 노래를 좋아해’하면서 핀잔을 주곤 했는데, 그때 그 이발소 그 의자 위에서 대중가요의 값어치를 느낀 셈이다.

그 후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원래 평범한 두뇌

의 소유자인 필자는 외국에서의 생활을 별로 즐기지 못하는 축에 들었다. 항상 긴장된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필자는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었었다.

공부를 끝내고 취직을 하니 직장생활은 말할 수 없이 바빠지고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게 되었다. 기회가 없었다기 보다는 음악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나 할까? 그도 그럴것이 그동안 이사를 4번 하고 자식을 셋을 얻었으니까 말이다. 이제 한

또 대중가요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가사를 아는 곡이 없어 사은회등 모임에서 동요를 부를 수 밖에 없었는데 조만간 한곡조 정도는 배워둘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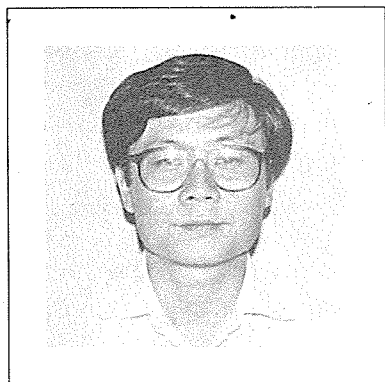
귀국한 뒤 아버님 댁에 들어가 살다가 나왔는데, 필자가 아동시절부터 수집해 둔 책과 레코드를 모두 주셔서 아이들도 보여줄겸 가져왔다. 몇달전 어느날 아내가 레코드를 정리하다가 한 장을 들고 필자에게 묻는데, 경쾌한 남미음악이 수록돼 있는 판 표지에 감상문 한 귀절이 써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브라질” 등등으로. 이것은 필자의 형이 대학 다니던 시절 이 레코드를 사와서 곡중에도 브라질 차차차 라는 곡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곡에 부친 감상문이 있었다.

그때는 그저 그렇게 흘러버린 곡이 형과 지내던 추억이 되살아 나면서 아주 경쾌하게 들렸다. 그 곡의 사연을 들은 아내와 아이들은 그 곡을 매우 좋아해서 지금까지 몇 차례씩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좋아해서 요즘음 들어서는 아침이면 꼭 한번씩 이 곡을 듣는다. 이 곡만 들면 모든 식구가 회회낙낙 좋아한다. 아이들 말에 의하면 이 곡이 ‘우리집의 노래’라고 떠들어 댄다.

모두들 이 곡과 같이 인생을 유쾌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 뿐 아니라 아동들이 보는 어린이 TV프로그램을 볼 때 주제곡으로 나오는 음악 역시도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매력이 있어서 재미있게 듣는다.

이렇게 필자의 나이가 들어 가면서 음악이 필자에게 준 영향이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음악이 없는 삶은 얼마나 메마른 삶일까 생각해 본다.

옛날 말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또 노래를 큰소리로 부르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 음악을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틈이 나는 대로 열심히 듣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함이 어떨까?



국에 돌아오고 아이들도 웬만큼 커서 마음의 여유도 있고 한결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다.

요즘 필자는 듣고싶던 고전음악도 듣고 경음악도 듣고 운동삼아 등산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던 판소리와 창이 가슴에 와 닿는다. 특히 듣기 쉬운 ‘춘향가’와 ‘홍부가’는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묘미가 있는 것 같다. 역시 필자도 늙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민족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창이나 판소리에 은근하게 정이 쏠린다.